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교단 연합
민족통일과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엠펙 6:12)

성경연구부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0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경헌 편집국장: 이형수



2002년도 제3회 청지기훈련

“선교”

우리는 누구이고(그리스도인의 명칭)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며(교회와 선교) 우리는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판결의 골짜기)?

은 교회가 열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선교”라는 주제로 실시된 2002년도 제3차 청지기 훈련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마쳐졌다.

이번 청지기훈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명칭” “교회와 선교” “판결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사흘간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도전 받았다.

이제 지난 청지기훈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종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신 민국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첫째 날(10월 16일) : 그리스도인의 명칭

“그리스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았도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모든 논문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수로 행하노라”(엠펙 3:15~18)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행 11:26)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도 하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주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골 1:25, 요 6:40, 롬 8:29).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제 형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갈 3:14, 롬 12:10, 갈 6:1~2).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판단과 지식과 감정이 아닌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과거에 유익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려 애로 받는 자들이라(갈 2:20). 어디 그뿐이라 이들은 믿음의 살이나 패를 향한 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성을 갖춘 성숙한 자들이라(엠펙 3:14~15, 전 12:13, 신 19:13, 요일 2:6, 12:21, 마 5:48).

또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취위열의 법칙을 역사의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인을 깨달은 영원한 진리에 이르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자들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오직 영으로만 변함 없이, 끊임 없이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한다(고전 2:15, 갈 5:16, 갈 5:25, 롬 8:4).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과 전통과 인간 문화의 부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골 3:6, 롬 8:27~28).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한다. 그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대한 사랑의 경향이 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버리시니 항복으로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깊이 체험한 자들이라(엠펙 5:1~2).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이다. 그리스도 많은 자들이 부름을 받았지만 매우 적은 수가 선택을 받고, 남은 자들은 거역한 자이다. 모든 사도들은 존재한다(골 1:6, 살 4:7, 디모 1:9, 벰 1:15, 19). 성경의 기약은 보다, 열매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랐고, 열매가 많은 이들이 기약은 외면하고 십자가에 내몰았기에 그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랐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이다. 기약해야 할 것이 있다. 성도 불려지는 것은 세살과 가까운 것이다. 세살이라는 것이다. 세살이라는, 순수한 백성이고, 나쁜 나날, 그의 소원 백성이다. 백성, 착한 백성임을 뜻한다(골 1:7). 사도 바울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제언이 있으며, 제언이 나 ‘나’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사 13:3). 귀신도 알고 있다고(마 12:4).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기신 거룩하신 자 성도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자 사단의 권세를 이기

는 자들이라(롬 16:20).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향이 있는 자들 이요(골 6:69), 존경스럽고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완전한 이름 이다(고전 1:2, 고후 11, 고전 6:2, 살후 1:10).

둘째 날(10월 17일) : 교회의 선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인하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 28:15~19)

다른 나라에 가보신 적이 전혀 없는 예수께서 모든 땅, 죄로 물들어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은 영혼들을 줄피한 모든 민족을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그렇다면 교회는 정복으로 가득 한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룹(Group)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억하라! 선교에 있어서 인간의 판단과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마 28:19~20),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과 관계를 맺으며, 교회와 관계를 맺고, 천상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맥박과 같다. (Heart-beat of God). 선교의 기초는 ‘감람산 전戰’이며,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축복이다. 또한 동산의 언약, 아나, 더 가까이 올라가서 태초에 있었던 천사의 회회이다.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골 1:8).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한다(마 24:14). 모든 시대는 인류 역사의 사막이며(창 12:1~3), 가이 할 곳은 땅 끝이요, 온 천하(마 24:14)(행 18, 마 16:15). 그리고 성도는 갈 6:16에서의 (아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재이며(창 3:15, 요 3:16, 고후 5:19). 하나님을 찾는 길은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으신다. 분이다(마 19:10). 하지만, 놀라게 성도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고전 1:21). 아무리 먼 곳에 있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찾으신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이다(13:12).

또한 “선교는 구원의 열매를 쏟아 놓으신다(회개와 죽음 그리고 구원). 천상의 권능 보배인 구주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시되, 창조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구주께 대하여 인간은 세상의 열광을 기대하고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제시했다(마 4:8). 구주께서는 오직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을 하늘 아버지께 교제 맺어주고자 하셨다(골 5:8). 그러므로 성도는 구주께서는 고난의 순전을 아나고 짓기며, 또 흘리시고 고통을 치르신 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마 16:34). 감사를하며도 구주께서는 자신들 영혼을 쏟아 부으셨고 모든 것을 주셨으며 모든 것을 다 지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나’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행해야 할 명령이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며(마 16:15). 선교는 종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행 12:1). 하나님의 회개와 보상이요(요 17:18). 교회는 신 속으로 달려가 전하여 한다(시 88:1). 그래서 성령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의 열매들은 천하에 거미하는 자들이요, 세계를 뒤집는 자들이라(행 17:6). 기억하라! 선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 치는 소리라(행 17:6).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 선교를 무위할 수 없으리라(마 16:20, 요 14:12).

“선교는 성경의 열매이다(주제). 성경이 선교의 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가 주

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신 사실을 기록하셨다. 구약 본 아나와 언약의 종속도 본이며, 특히 사도행전은 성경의 선교에 대한 역사이다(행 1:8).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선교사이고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선교사이다(롬 10:14~15).

“선교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십자가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과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눈물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리라(사 26:5~8). 추수를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일꾼을 보내라 주시도록 기도하라(마 9:37~38). 지금은 추수할 때이다(요 4:35). 추수의 때에 구경하리라 방관하는 아리키는 자기 지기 말라(마 10:5).

셋째 날(10월 18일) : 판결의 골짜기

“사람이 많았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았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리라”(골 3:14)

누구나 판결의 골짜기(the valley of decision)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결정에 따라 모든 인류의 지주와 축복도 나누어진다. 사할을 아는가? 이 두루은 여호와와 나에 대한 경고는 인간을 향하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택함을 받았던(창 12:3).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놀라게도 신약의 첫 구원은 창세기 12: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고 있다(마 1:1).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속적으로 되새기신다(행 18:18, 26:4).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후사가 되며(골 4:13, 갈 3:29).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졌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골 3:8~9)? 영연의 후손을 메시자로 약속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는 메시자로 약속하셨다. 보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자로 보내셨다(마 12:27, 고후 5:15, 17). 그리고 메시자로 보내시는 목적은 구원을 구원하시게 하신다(사 43:1~4).

그러므로 판결의 골짜기(the valley of decision)에 서게 된다. 그것은 심판과 자, 영생과 축복이다(요 3:36).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 무릇, 즉 언제나 두 주님이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판결의 골짜기에 서 있다(마 6:24). 또한 판결의 골짜기에는 두 길도 열려 있으며, 그 길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이다(마 7:13~14, 롬 16:25, 요 12:7). 그리고 이 길들이나 각각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골 6:23).

“선교는 인간의 열의와 종결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끝이 오기까지, 하나님께로 서두른 곳까지 힘을 다해야 한다. 당신은 목자이다. 나타내실 때에 천국으로 발을 댄 상에 대하여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벰 1:18)?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당신이 종생으로 십자가를 지기 가는 것을 바라보고 기약하시라(골 2:21, 23). 진실로 천상행하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가라’고 말하시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라.”

Antioch Church

(Acts 13:1-5)

*"And while
they were ministering
to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n, when they had fasted
and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they sent them away.*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i f i -*

Our liturgical calendar reminds us that today is Reformation Day. The Reformation was a period in church history where church leaders, like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protested against what they perceived as the overall degeneracy of the Roman Church and its departure from what the Reformers saw as the faith of the apostles and early church fathers. Let's come back to the primitive church and its pure Gospel. Let's look at the first Gentile church in Antioch, the church which was started by some unnamed missionaries and edified by Barnabas and Saul.

The first church, of course, started in Jerusalem but the church at Antioch started from mission work. That's why it became a church! What kind of church was the church at Antioch? The Bible tells us, "Now there were at Antioch, in the church that was there,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and Simeon who was called Niger, and Lucius of Cyrene, and Nanaen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and Saul" (v. 1). This church had prophets and teachers. They had all different kinds of church leaders, some of whom are even named. Barnabas was a Levite of Cyprian birth. He was a kind and generous man who had sold a tract of land he owned and given the proceeds to the apostles (see Acts 4:34-37). Simeon was called Niger. Niger was his Latin name and probably indicates that he was an African. Obviously, the church at Antioch didn't have any problems with discrimination. Can you believe it? Luke 23:26 says, "When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a man, Simon of Cyrene, coming in from the country, and placed on him the cross to carry behind Jesus." This might be the same black individual in today's verses. We know that most Jews of that day abhorred the cross and black people were looked at as cursed, so perhaps this Simon is the same one as in Antioch. Lucius was a North African Gentile who was really diligent and crazy about missions. Manaen was a foster brother, a designation given to boys of the same age as royal children with whom they were brought up with, to Herod Antipas. Herod Antipas was the bad ruler of Galilee during the public ministry of Christ. And Saul, the persecutor of all Christians who met Jesus and changed into an entirely different person was also part of the Antioch church.

All different characters with all different geographical backgrounds and all different experiences attended the church at Antioch. They were the people who had found God's secret which is Jesus Christ, their Savior. Barnabas, Simeon, Lucius, Manaen, and

Saul became one under the cross because of their faith in Jesus. They had missionary hearts. Why were they Christians? Because somebody came to them and shared the Gospel. All these different people, of various Jewish and Gentile backgrounds, were contacted by someone who told them about God's grace which is found only in Jesus Christ.

Who are missionaries? They are people who have a love for individual souls. Just look at this Antioch church, "While they were ministering to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n, when they had fasted and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they sent them away" (vv. 2&3). This church listened to the Holy Spirit. They fasted and prayed. When the Holy Spirit spoke, they heard His voice and followed His way. They listened! Barnabas and Saul were key leaders in the church. They were their best preachers. Most churches don't want to send their best preachers away. Would you want to send me away? The Antioch church didn't do what they wanted. They listened to the Holy Spirit and sent out Barnabas and Saul.

How did this church send its missionary people into mission? They sent them away by parting with them, by praying for them, and by paying for them.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e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When they reached Salamis, they began to proclaim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also had John as their helper" (vv. 4&5). They willing sent willing people. People who aren't willing to go shouldn't be sent. The Antioch church sent willing people. In other words, Barnabas and Saul were sent away through the Holy Spirit by the church. These two people wanted to go. How many people in this church are called but only visit their neighbors? Or how many just go around the block? Some people go around the world.

Where do you belong? Are you willing to go? There are tons of soldiers dying everywhere. Are you the one the Holy Spirit is calling to share the Gospel with these men, women, and children? Are you really saved? Are you praising the Lord and listening to the Holy Spirit's voice? Does the Holy Spirit want to send you out? Where are you? Where does our church, right now, belong in this reformed day? Let's come back to the heart and faith of the early church, the reformed church. 📖

안디옥 교회

행 13:1~5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김성관 목사

첫 이방인 교회

기록력에 의하면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총체적으로 부패하였고 사도들과 교부들의 신앙에서 이탈되었다고 판단하여 로마 교회에 반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 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순수한 복음에 대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이 세우고, 바나바와 사울(바울)이 든든하게 자라도록 탐 흘렸던 ‘안디옥’의 첫 이방인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증인들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1절). 이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직책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 중 몇몇은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할 만큼 신실하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행 4:34-37). 시므온은 니게르라고도 불렸습니다. 니게르라는 라틴어 명칭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임을 뜻하는 이름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확실히 안디옥 교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26 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아마도 이 후인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경멸하고 후인을 저주받은 자들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아마도 안디옥의 시므온과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루기오는 북부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으며 선교에 미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젖동생이라 함은 왕의 자녀들과 같은 나이로서 밖에서 데려와 양육한 소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리스도의 공생애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또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지리적 배경과 다른 경험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향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다양한 이방인이 함께 만난 것은 누군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

누가 선교사입니까? 각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품은 자가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2-3절). 이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최고의 설교자들을 멀리 보내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멀리 보내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파송되는 증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파송했습니까? 그들은 작별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4-5절). 그들의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려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고자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을 통해 교회에 의해 파송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와 옆집 사람에게만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갑니까?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저기에서 죽어 가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녀노소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을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종교개혁의 날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의 마음과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

망글까지

2차 단계 선교가 마무리되고 3차 팀들이 준비 중이다.

우리가 가는 미전도 지역들은 불교권, 회교권, 공산권, 다신교권 등 다양하다.

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있는 신이 다르며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시각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라별로 제작한 전도지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권의 전도지를 그대로 러시아어로 번역해 공산권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회교권으로 가져가 전도한다. 물론, 복음은 하나이고 우리는 온전히 복음의 임해야 한다.

그러나 각 지역들이 알고 있는 신이 다르기에, 전도 방법도 그들의 특색에 따라 다르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선교위원회에서는 각 권역별 전도지를 작성에 보았다. 금주는 불교권 전도시 사용할 전도 내용을 살펴본다.

불교권에서의 전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당신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어 왔습니다.

창조와 창조주

당신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창 1: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절대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형상과 비형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인 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창 2:7-9). 에덴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다름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영원히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 2:17; 3:6). 이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에덴동산에서 영원한 희락을 누리고 어기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이는 불순종하여 이 약속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과로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롬 3:23)? 모든 인간 의 시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행하고, 생각으로 저지릅니다. 당신도 죄인이기도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롬 3:23).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음

수도나 선행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로나 행함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롬 6:23).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당신과 나는 불과 몇 년 후에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죽음을 맞으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제 20:15).

지옥과 천국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땅 위의 삶은 길어야 칠십, 팔십, 백을 못 넘기는 땅시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심판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막 9:48-49).

지옥은 영원히 고통과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막 9:43, 마 18:8, 마 25:46).

반면 천국은 낙원·고통·슬픔·이별과 아픔이 없고 질병과 전쟁이 없는 곳입니다. 가난이 없는 곳입니다 저주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혹은 어느 날 죽음을 맞으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십니다(요 3:16-17).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벧전 2:24).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당신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사 1:18, 롬 1:9). 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마 11:25-26).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신이시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요 5:24).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네가 만일 네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롬 10:9-11).

영접기도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살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손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살게 하시며 구원받고 천국을 얻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성령의 인도 따라 계속).

선교위원회 제공



"선교 기도회로 모임이다"

2002년 1·2차 단계 선교에 700여 명의 성도가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금번 3차 단계 선교단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파송될 3차 단계 선교단과 복음이 전해진 1·2차 단계 선교 사역자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갈릴릴

시간: 주일 오후 4시~4시40분

지역/ 1) 1·2차 단계 선교를 다녀온 성도 2) 3차 단계 선교 준비하는 성도 3)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완전한 은혜로

신 향 현 (청년부 물골 단기선교팀)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었던 나만의 열심과 욕심 때문에, 몽골은 약간 시시한 나라로 비춰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준비하는 동안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역 떠나는 날까지 뭇가 부족함을 안은 채 몽골로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몽골에 도착해서부터 나의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하루를 묵은 후 사역지역 고비섬베르까지 8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의 먼지 길을 달려가는데 몸은 지치고 아파오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적막대다 되어서 고비섬베르에 도착했는데 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강로남은 나가서 당장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강로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몸은 지칠대로 지쳐있는데 저녁도 안 먹고 전도를 하라니, 그러나 담뭍을 은 지친 몸을 이끌고 속소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곤과 불평은 어느덧 사라지고, 뭇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불만만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음날도 어디선가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주의 복음을 순순히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던 의심은 사라지고 정말로 신나게 그리고 기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죽히 100명은 넘는) 순식간에 모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 사역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복음 사역이 절대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준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듯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

김 현 수(청년부)

98년 가을, 내가 청년부 신입부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리더였던 인이는 어떤 청년들과 매우 다르게 찍은 스티커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목회 성경공부만 조원들이"라고 했다.

그런 다정다감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며 막연히 나도 언젠가 동참해야지라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나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선물 용기를 낼 수 없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되는 조장들의 권유도 일만 일만 양 홀려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2001년 봄 나를 목회 성경공부만 과정으로 인도해주었다. 그렇다. 내가 갔다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시라"(잠언 16:9).

목회 성경공부만에서의 성경공부는 먼저, 기독교에 관한 막연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주었다.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이며 그 구원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로 좋은 선생님과 조원들을 선물로 받았다. 일 주일에 한번씩 모여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다보니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정말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감동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족한 나를 인도하시어 목회 성경공부만 과정을 무사히 은혜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까를 다시금 소망하며 기대해본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본문: 호세아1:1-11

송 옥란 (청년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란한 아내를 취하여 유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영국의 멸망), 로루하마(은혜를 받지 못함), 로마미(내 백성이 아님)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뜻과 계획을 알려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변화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순종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는 '실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저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써있는 구원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이 세상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전하는 일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목상은

내 영혼의 생명

나는 교회에서 때 많은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기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말씀목상의 중요성과 큐티하는 법을 배웠다. 그와 동시에 교회에 비 조장 학교에서도 그 중요성을 매일 들었다. 말씀을 통해 언제나 집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감정에 의존했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회복되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나의 상처와 왜곡된 자아가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위로를 얻었다. 그러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주님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지배를 받았고, 이 때문에 나의 마음은 목마름과 격정 근심으로 변했다. 말씀을 나의 최후순 순위에 두지 못하고 상황과 급한 일과 타협함으로 그 동안 누웠던 은혜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다 성경공부 모임에서 3개월 동안의 새 생명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다시금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의 최후순 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좋은 습관이 생겨 이제 말씀목상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속에서 어려운 습관과 장애물 때문에 내 자신과 싸울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남 정민 (청년부)



구역장 영성훈련

네가 어떠하뇨?(렘 1:4-12)

11교구 김교성 목사



본문에 드러나 있듯이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를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으신 이유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역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우신 것이다(4-5절).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죄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죄를 들춰내어 회개하라는 말이다. 이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말을 하면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레미야 역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왜 인간을 기쁘게 함으로 존경받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정제성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바른 정제성을 갖고 있는가? 구역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가? 구역원들이 기뻐하는 말만을 하며 그들의 자랑을 들어주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다(9-10절). 왜 자신을 구역장으로 세우셨는가 생각해 보라. 구역원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역예배에 온다. 구역예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이다. 예레미야가 특별하여 그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졌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사명이 주어졌다.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이 열매는 꼭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숫자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구역원들의 영성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조정이 많아지고 있다면 구역장들의 사역에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이다.

(권요섭 기자)

시·편·묵·상

"예배에 유하며 깨달음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하로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판단인 회개를 통해 이미 빛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첫 발자국을 내딛은 자들의 회개기도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느도다".

메소포타미아의 힘과 애굽의 지혜는 하나님과 분리된 권력이고 지식이었기에 파국과 함께 몸을 결실만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세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한 후, 순례하는 백성이 되어, 거짓과 폭력의 길을 떠나 화평과 의의 길을 취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후로 완전한 무죄 상태로 살았거나, 초자연적 화광을 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 당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 대신에 오직 좁은 한 길을 택하는 결단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삶에 대한 기대로부터, 믿음으로 초라한 제자의 순례길로 이행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성경적 언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의 회개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모두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마 3:2; 4:17).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도 '회개하라'고 교회를 책망합니다(계 3:19). 회개는 어떠한 감정이나 자신의 죄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옛 것을 답습하고 옛 사고를 고수한 채로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영적인 연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화평의 길로 행하는 그의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야말로 현실에 뿌리박은 가장 실천적인 말이고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삶의 길을 거부할 때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임혜원 기자)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867년 필립 폴 블리스(Philip P. Bliss, 1838-1876)가 무디 선생의 집회 찬송인도자로 있던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설교 중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해상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칠곡같이 어두운 밤, 무서운 풍랑을 뚫고 여객선 하나가 클리브랜드 항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아무리 어두워도 등대 불만 발견하면 안전할 수 있겠다고 서로 확인하였던 선장과 타수는 등대 하나만 비추고 있는 항구를 향하여 나아갔으나 빛이 약하여 결국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혀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 무디 선생이 외쳤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시요, 우리는 다 작은 등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블리스는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 곧 찬송가로 옮겼다.

1절: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커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간지내어 살리세

2절: 죄의 법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3절: 주의 등불 돌우려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캄캄한 밤, 배와 등대 그리고 풍랑의 바다가 한 눈에 그려지는 '진도와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찬송이다. 큰 등대와 작은 등대 사이로 안전하게 항해하여 들어오는 배를 보는 것처럼 부럽고도 힘겹게 불려야 한다. 특별히 셋째 단에서 리듬이 다른 데 주의를 정확히 불러야 작곡자의 의도가 가사에 잘 실려 찬송되어질 것이다.

(찬양위원회)

✦ 양호실

2교구 임지현 집사(여52세) 난소암 말기로 미국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남은 시간을 평안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7교구 유은순 성도(여90세) 고관절이 골절되었는데 치료 불가능하며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뼈가 붙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자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강종근 성도(남83세) 넘어져서 골반이 골절되어 골반 부위에 침침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심상국 성도(남72세) 위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제2도 급격하게 줄었으며 식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9교구 류동호(남16세) 사망부 형제에게 실한 경기(shock)로 의식을 잃어 4주가 지나도록 혼수 상태인 채 의료기구를 감지하고 자택에 누워 있습니다. 빨리 의식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열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연희의 ♥ 위정희 성도를 소개합니다



어떤 종교와 신도 믿지 않았던 남편 조연희 성도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곳이 다인 것으로 알고 살았습다. 몸이 많이 아파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생을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종 사촌이 항상 전도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내 위정희 성도는 먼저 소망부에 다니다가 남편이 등록한 후 함께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기도도 함께 하는데, 특히 딸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믿음생활 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알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일직 일이나 기쁜 마음과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날이 정말 행복합니다.

(한송희 통신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선 자 (유치부 신임교사)

주님 새 친구 10명을 보내주세요. 유치부 신입생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동안 나오지 않던 장기결석 친구들에게 엽서를 보내며, 제발 부모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를 기도했다. 드디어 초청을 하는 주일 1부 예배! 그러나 1명도 오지않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 동안 애쓰며 수고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주님은 미련한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2부 예배 때 가득 나온 아이들을 보게 하셨다. 눈물이 가슴으로부터 솟아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께서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실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

그 동안 게으름 속에서 기도도 드리지 않고 있던 어리석은 교사. 갑자기 하나님께 드림께 드림께 올려드리고 있었다. 나는 교사로서 얼마나 아이들의 영혼을 곁안고 기도하는가? 얼마나 눈물과 맘을 쏟았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러놓고 송구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봉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어린 친구들이 구원의 문인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유치부 아이들의 고백의 외침. 교사들이 열심히 성경을 하고 아이들은 진지하게 바라본다. 주님을 믿었던 나사로, 그리고 자신과 재산을 버렸던 일리석은 부자. 그 속에 새로 나온 친구들도 마냥 즐거워하며 함께 한다. 부모를 원망하며 소리치고 나사로를 돕고 싶어하는 그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참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 이 세상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만나 주신 예수님, 진리요 생명되신 그분들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기도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속에 달아두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

진리의 샘

요한복음(John)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또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또는 ‘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제가 찾은 횡사본 10번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명사인 ‘믿음’ 보다는 ‘ 믿는다’라는 동사형태로 거의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 속에 맺도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을 요창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기시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데, 모든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에 언제나 ‘ 믿음’은 동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절기, 그리고 7가지의 표현(“나는 ...이다”) 등을 모두 ‘ 믿음’을 요창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나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표적과 교훈 등을 ‘외적 계서’로 여겼고, 이것을 듣고 ‘내적 반응’인 믿음을 가지면, 결국 ‘영원한 결과’인 영생을 얻는다는 동일한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복돋기 위하여 기록한 7가지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장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4장의 왕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5장의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6장의 오병이어 사건, 물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9장의 선천성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는 2장의 첫 번째 유월절, 5장의 유대인의 명절, 6장의 두 번째 유월절, 7장의 장막절(초막절), 10장의 수전절(봉헌절), 12장과 13장의 세 번째 유월절이 그것입니다. 또한 7가지 신보는 6장의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의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의 ‘나는 문이라’, 13번의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5장의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7가지의 표적과 절기와 신보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모두 믿음을 요창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표적과 절기 그리고 신보를 빠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표적·절기·신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보다 더은 새로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필사성경을 하면서

임 현 지 (유치부 1학년)



유년부에 올라오니 필사성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필사성경을 왜 해야하는지, 힘들게 써야하는 이유를 몰라서 2개월 동안 안 썼는데 선생님께서 쓰라고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펴보니 전에 읽기도 하고 선생님께 배웠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미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말씀을 쓰면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겨서 필사성경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또 필사성경을 하다보니 성경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2학기부터는 성경도 매일매일 읽게 되어 지금은 민수기를 읽는다. 많이 힘들지만 기도하고 읽고 또 쓰니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지금은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필사성경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창

신앙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보잘것 없음으로 인해 실망해집니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인간의 초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복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욥 9:9-10)’입니다. 우리 은하의 크기만 해도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으니, 그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은혜 주변에 태양계 있고, 태양계에 속한 모든 행성 중의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선다면 숙연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 하거니와 신묘막측(신 33:9)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티끌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 성살의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었고(요 3:16),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갈 2:20). 그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히 9:14).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으셨으며(막 15:34), 아들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 목말라 하셨습니다(요 19:28). 성령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앞에 피로써요 탄생을 자아내셨습니다(마 27:51).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총체적 의미는 곧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한곳으로 수렴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찮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그분께 존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지 아닌지 말입니까? 십자가 이외에 달리 무엇을 말할 수 있던 말입니까?

(박경배·외선부교사)

모임

- 1. 장로 할로세백기도회
일시: 21(월) 새벽기도 후
장소: 베다니홀
- 2. 안수집사회 할로세백기도회
일시: 22(화) 새벽기도 후
장소: 베다니홀
- 3. 찬양위원회 일례회
일시: 오는 찬양예배 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 4. 각 헌당 부대간 - 총무 연설회의
일시: 25(일) 19:00
장소: 찬양위원회실
- 5. 전도위원회 남산전도부 일례회
일시: 27일(다음주일)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 6. 봉사위원회 일례회
일시: 오는 15:30
장소: 봉사위원회실
- 7. 군전도회 일례회
일시: 25(일) 18:00
장소: 베다니홀(1700 만년송 식사)
- 8. 고경전도회 일례회
일시: 27일(다음주일) 15:30
장소: 베다니홀
- 9. 경사 3차회 일례회
일시: 29일(수) 오후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 1. 바울 4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영아부실
- 2. 바울 6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 401호
- 3. 바울 7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 407호
- 4. 바울 9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베다니홀
- 5. 바울 10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 6. 바울 11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유지부실
- 7. 바울 16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복귀관 지하2층
- 8. 베드로 2차회 일례회
일시: 27일(다음주일)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 9. 베드로 6차회 일례회
일시: 22(화) 19:30
장소: 김철환 집사역
- 11. 베드로 7차회 일례회
일시: 24(목) 19:30
장소: 강동교회
- 11. 베드로 9차회 일례회
일시: 25(일) 금요집회 후
장소: 교구당 301호
- 12. 베드로 11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일 장소
- 13. 요한 5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 14. 요한 5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일 5층 22부 집회실
- 15. 요한 17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19:00

장소: 축전동 대자마을

일시: 오는 19:00

장소: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일례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복귀관 지하2층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 301호

일시: 오는 15:00

장소: 본당 지하층 방과다세방

일시: 25(일) 10:30

장소: 한라산 길 건너 오금공원 정문앞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 407호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후

일시: 오는 15:00

장소: 교구당일 후

장소: 베다니홀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 201호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 1000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원도원 경각자 정문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학사부실

일시: 오는 15:00

장소: 강동교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베다니홀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복귀관 지하2층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유지부실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복귀관 지하2층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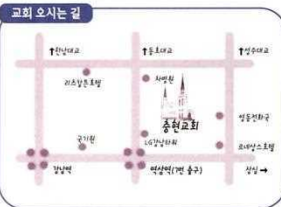
2022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0월 20일 (주일)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50	기독교교우 (고광환 목사)	교구당 309호	세례자: (이수근 목사)	교구당 309호	유아세례자: (안정환 목사)	교구당 301호
10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이반주 새벽기도회 답답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설교자	이수근	정진호	김용익	이성욱	고광환	김광준	나광영
기도자	김광남	김성호	이종민	정원근	양기수	김정연	장덕필

- 일시: 24(일) 10:30
장소: 영각기도원(991-9952)
- 36. 에스더 11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 307호
- 37. 루디아 12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교구당일 장소
- 38. 루디아 15차회 일례회
일시: 오는 교구당일 후
장소: 갈릴리움
- 39. 마리아 6차회 일례회
일시: 22(화) 11:00
장소: 광혜진 집사역(☎ 425-5922)
- 40. 마리아 7차회 일례회
일시: 22(화) 10:30
장소: 영아부실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1:00 (유아세례예배)	본당
V	오전 11:00 (유아세례예배)	본당
VI	오전 11:00 (유아세례예배)	본당
찬양 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 예배	오전 11:00	본당
금요일 예배	오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최종집회	오전 10:30	버스: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75년 사랑 운동 - 목회 운동 1000 / 월 회 회 1000 / 주일 운동 1000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윤인철 최태원 임영철 강오용 오정현
이 훈 남순주 정순호 김영길 홍순구
조인재 김중구 최무길 김전철 이창호
차진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이하영
이병욱 안종욱 임우천 이종실 최기훈
김기재 진홍용 전홍철 이정우 김대원
황영일 한송규 김영주 정홍식 김한기
원종욱 이형수 안동현 최의만 김구형
최유덕 이계인 박익양 이대식 정대우
박용규 권명옥 조종환 배준식 김달당
이철호 박찬섭 최지훈 노영환 박철규
정정길 신상수 김철형 고계승 김영은
원종욱 김우현 김우현 김우현 김우현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여경기 류병복 노경목 이종철 김경준
여국진 김교성 이수근 이윤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광우
고광환 김광준 위준강 김익환 김경주
장 훈 현현덕 이희식 최홍철 최홍철
- 찬양감독 강영규
■ 감 도 사 김윤식 김성경
- 전도사
정현철 신동자 윤인국 한영준 김진석
홍순은 이우주 김갑자 안태순 김경진
조옥자 장덕필 김경진 장배구 최문진
전은희 김영순 김경자
- 단기선교사
■ 단기미션선교사
■ 협력선교사

충현중보의창

-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주소.
-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회를 힘쓰게 하소서.
- 4.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되게 하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교구별 택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79	김정진	1	청년2부	686	장민관	19	고동주		
680	김민진	1	청년1부	687	김승현	19	청년1부		
681	이문도	4	장남부	688	이정하	19	청년1부		
682	방정희	14	장남1부	689	김기욱	12	청년1부	유옥중(19)	
683	윤영국	14	장남1부	690	이정우	19	청년2부	이진규(6)	
684	김진수	16	청년2부	691	하하진	19	청년2부	방남숙(19)	
685	최창식	17	청년2부	692	강기근	19	청년2부		